



濁流清論

제68호 2022년 11월 7일

발행인: 박 만 규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1
- 아주대는 용기가 있는가?	
<u>특집</u>	4
- 신입교원 소개	
- 정년퇴임 교수 소회	9
<u>소통과 담론</u>	13
- 제 2회 교수회 Unconference : 외란(外亂, Disturbance)속에서 살아남기	
<u>교수들의 건강칼럼</u>	18
- 문학 속의 간(肝) 이야기	
<u>저서 소개란</u>	19
- Cine-Mobility: Twentieth-Century Transformations in Korea's Film and Transportation (김한상)	
- 환경과학 - 자연과 문명에 대한 통찰과 생태학적 시선으로 본 환경문제(박상규)	
<u>소식</u>	21
- 124차 대의원회	
- 교수회 Unconference 개최	
- 제 2회 교수라이프세미나 개최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아주대는 용기가 있는가?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규

요즘 대학들은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는 대학의 명성에 직결되는 요소여서 대학마다 연구업적 평가의 기준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학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교수 연구실적평가 기준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가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즉 연구 인프라와 처우에 대한 개선 없이 연구실적평가의 기준만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본부의 고충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등록금이 십년 이상 사실상 동결되어 있어 재정 상황이 나날이 열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투입해야 하는 분야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학교 본부가 이전보다 강력한 새로운 시행안을 도입하고 이 시행안을 통해 교수를 평가하고 그 결과 교수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킨다면 결국 학교 내의 상호 협조 분위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

이다. 각자도생의 분위기 하에서 교수들은 실적 압박감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메일 확인에도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에게 공지를 해도 전달이 안 된다는 본부 처장들의 푸념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쏟아지는 이메일에 묻혀서 읽혀지지 않거나 읽혀져도 숙지되는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실에서의 고립 생활은 학내외에서의 사회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는 교수들로 하여금 결국 학계나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작은 연구에 치중하게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작은 연구와 적은 연구비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소소한 연구 논문의 축적으로는 결코 아주대를 최일류 대학으로 만들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교수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욱 우수한 학생들을 받고 또 학생들을 더욱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사회를 바꿀 정도의 커다란 연구 성과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큰 의미가 없는 작은 연구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이 인정하는 필생의 연구 업적에 도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수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연구비 수주 경쟁을 포기해야 하고, 요컨대 현행 연구 실적 평가 제도도 포기하거나 한동안 유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연구 실적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면 아무런 연구 실적도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교수들은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나태함과 일신의 편안함을 불명예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한편, 매년 평가를 받는 단기적인 소논문들의 양산 의무에서 교수들을 해방시켜 주는 대신, 자신이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마련하고 관련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기 위해 교수회에서 지난 9월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교수회 학술위원회(위원장 의과대학 김경민 교수)가 주관하는 학제간 집담회인 ‘언컨퍼런스’(unconference)가 그것이다. 이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공 분야가 다른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지금까지 두 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서 평가가 큰 의미는 없지만,

참여 인원이 15명, 16명이었기에 많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참여한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자신의 연구에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2회 모임에서는 공과대학 이문구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자신이 보내는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제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9시에 출근하자마자 박사과정 지도 학생의 논문을 교정해 주려는 시도가 자신의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항의하려는 한 학부 학생의 출현으로 방해 받는 것을 시작으로, 성적 처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학과로부터의 행정적 요구, 반려된 출장보고서의 재작성, 이어지는 학과 회의, 전화, 이메일 및 몇몇 사람들의 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논문 교정 시도가 무산되는 것으로 오전이 지나갔고, 연구실에서는 집중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트북을 챙겨 카페로 피신을 가는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지만 거기에서도 소음과 전화, 카톡 등을 통한 갖가지 일상사들로 온전한 평온을 찾지 못하고 주어진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발제는 일반적인 교수들의 일상이 얼마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가득한 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두 번에 걸친 연컨퍼런스에서 교수들이 보인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만족'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만족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이러니였다. 좋은데 좋음이 알려지지 않는 폐쇄적 구조인 것이다. 언젠가는 이 폐쇄적 구조가 개방적 순환 구조로 바뀔 것을 기대한다.

아무튼 이문구 교수의 발제가 보여주었듯이, 교수들의 일상은 국내외 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정도의 중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결코 도와주는 것이 못 된다. 우리는 이러한 힘든 삶을 계속 살면서 소소한 연구실적을 내는 데 만족해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틀을 벗어던지고 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필생의 연구 실적을 내어 진정으로 학교를 발전시킬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럴 용기가 있는가?

물론 내가 학교에 지금 바로 현행 연구 실적 평가 체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요컨대 소소한 연구를 시행하는 현재의 환경을 보다 더 크고 의미있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큰 것을 위해 소소함을 포기하는 Ajou 큰 용기가 필요하다!

특집

2022 2학기 신입 교원 소개 (가나다순)

분자과학기술학과 박 현 지



안녕하십니까? 분자과학기술학과 신입 교원 박현지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조지아공과대학과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4년 반을 근무한 뒤 이번 학기에 저의 모교인 아주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대학원에서는 조직공학 생체재료기술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가 좋은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박사 후 연구원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인포매틱스 기법을 이용하여 세포 공여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노인성 질환,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 특이적 줄기세포 치료제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연구에만 전념하지 않고 학생 교육 및 후학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아주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저서 및 논문

Park HJ, Hoffman JR, Brown ME, Bheri S, Davis ME. Knockdown of miRNA-192 and miR-432 in progenitor cell-derived small extracellular vesicles enhances tissue repair in myocardial infarction. **Science Advances** (Accepted)

Park HJ et al.,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cardiac cellular matrix and cardiac cells in ischemic heart disease. **Stem Cells** 2021;39(12):1650-1659.

Baek J*, Cho Y*, Park HJ* et al., A surface-tailoring method for rapid non-thermosensitive cell-sheet engineering via functional polymer coatings. **Advanced Materials** 2020;32(16):1907225.

Park HJ*, Kuai R* et al., High-density lipoprotein-mimicking nanodiscs carrying peptide for enhanced therapeutic angiogenesis in diabetic hindlimb ischemia. **Biomaterials** 2018;161:69-80.

수학과 신 동 욱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신임 조교수 신동욱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으로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사, 동 대학원 계산과학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동 대학 응용해석 및 계산센터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명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좋은 기회를 얻어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수치해석, 산업수학, 머신러닝/딥러닝 등입니다. 주로 편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수치적 방법을 개발하고, 이 방법에 대한 안정성, 수렴성, 오차 등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증명한 이론을 수치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고 이후에는 머신러닝/딥러닝 모델을 공부해왔으며 전통적인 수치 기법과 비교하며 상호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대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 기회가 된다면 함께 좋은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치해석 및 머신러닝/딥러닝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 또는 사회 진출을 돕고 아주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을 보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유 리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신임교원 유리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하여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이제희 교수님의 지도 하에 2021년 2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에서 연구교수를 하면서 신경과, 재활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데이터로부터 환자의 움직임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사람의 움직임을 3차원 가상 공간에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체는 수 백개의 뼈와 근육, 신경, 조직들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구조이며 사람은 매우 다양한 동작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연구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의 움직임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모션캡처나 센서 기반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비디오 데이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도 수많은 영상데이터들이 있죠. 저는 2차원 영상으로부터 물리 시뮬레이션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다양한 움직임을 가상 환경에 재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4차 혁명의 다양한 분야들, 헬스 케어, 자율 주행, 로봇틱스, 메타버스, AR/VR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저의 궁극적 목표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환경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휴먼”입니다. 비디오로부터 인체, 사람의 움직임, 주변 환경, 표정 등을 복제하여 가상공간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 감정, 의도, 행동 등을 추정 및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Computer science technology를 활용하여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돕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융합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아주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협업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소재공학과 조 성 범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신소재공학과와의 신입교원 조성범입니다. 먼저 아주대학교의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과 물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전산재료과학을 주제로 201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약 2년간 박사후과정을 거쳐, 한국세라믹기술원 가상공학센터에서 3년간 선임연구원으로, 그리고 뒤이은 1년간은 디지털소재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아주대학교 첨단신소재공학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일원리계산, 다중물리 유한요소해석, 기계학습등의 다양한 계산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유전체, 배터리, 연료전지, 에너지하베스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계에서의 이론유도부터, 산업체 기술이전과 같은 응용설계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에서의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뛰어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학과 허 지 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신입교원 허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과 시절 신경과학 분야를 처음 접한뒤, 인간의 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주대 신경과학기술협동과정 석사 학위부터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t 박사 학위 과정, 미국 뉴욕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박사 후 연구원, Senior Research Scientist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 논문으로는 뉴욕에서 연구원 시절, 미국 여섯 군데의 다른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선천성 면역 단백질 IFITM3가 어떻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연결되는지 최초로 기작을 밝힌 논문이 있습니다 (Nature, 2020).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화가 화두인 만큼, 아주대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협업하며, 치료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치매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학부대학 황 선 영



안녕하십니까? 다산학부대학에 오게 된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2017년 이화여대 한국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18년부터 송실대 베어드교양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이번 학기에 아주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한국어교육학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 발달에 대해 연구하는 중간언어화용론 연구와 한국어와 타언어를 비교하면서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설명하는 비교문화화용론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한국 사회의 다중언어 의사소통」,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담화 화용 연구」, 「교육 국제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있고, 그밖에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 「대학 생활이 쉬워지는 한국어」, 「이화 한국어」, 「세종 한국어 회화 익힘책」, 「Korean Language in Action」 등의 한국어 교재와 국외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과서들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정년퇴임
교수 소회

정년퇴직 소감

산업공학과 임 석 철

1. 아주에서의 추억

1997년 여름방학에 산업공학과 학부생, 대학원생들 45명으로 구성된 "제1회 차세대 산업지도자 탐방단"을 인솔하여 버스로 청주, 광주, 군산의 공장들을 견학하고 졸업생들을 만나고 2박3일의 일정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간에 끈끈한 우정을 쌓은 일이 가장 추억으로 남는다. 특히 대천 해변의 방파제 위로 국토사랑행진을 하려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얀 티셔츠를 맞춰 입은 우리 학생들은 귀를 후벼파는 듯한 세찬 폭풍우 속에서도 한 줄로 의연하게, 각자 묵묵히 나름의 상념에 잠기면서, 방파제를 세차게 때리는 거대한 파도와 자연의 힘 앞에 숙연함 마저 느끼면서 온 몸이 뽀짝 젖은 채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걸었던 일은 인생에 다시는 맛볼수 없는 경이로움, 하나됨, 성취감의 추억이 되었다.

2. 나에게 아주는?

눈맑은 청년들이 강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무숲으로 가득한 아담한 캠퍼스가 사계절 아름다운 꿈의 캠퍼스.

3. 후배 교수와 학생들에게

교수들은 대학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권한이란 최고의 강의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매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뿌듯한 지적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권한, 최고의 학술적 수월성을 연구결과로 보여주는 권한, 학생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권한,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권한, 학과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수들간에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권한, 사회에서 대체로 존중받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선용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 등이다. 교수의 책임이란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대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2C로 준비하기 바란다. Competence, 즉 실력과 역량을 길러라. 그리고 Character, 즉 성숙한 성품을 길러라.

4. 못다한 이야기

내가 지도하던 물류소학회에 한 졸업생이 장학금을 기부해서 매학기 장학금 지원서를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게 되었다.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알바로 힘겹게 등록금을 내는 학생, 알바 안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학생, 강의실에 앉아있는 말쑥해 보이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수업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몇십만원의 장학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주 캠퍼스에서 맑고 강인한 청년들로 성장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소망한다.

정년퇴임
교수
소회

행복하게 살아왔던 인생

건설시스템공학과 한 만 업

1. 아주대에서의 추억

원래부터 등산을 좋아했던 나는 1990년 8월 말에 아주대에 부임하자마자, 한 달여 만인 10월 초에 선배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라산 등산을 갔다. 이 등산이 계기가 되어 그 다음해 1991년 1월부터 아주대 교수 산악회(아교산)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나는 총무를 맡아서 지난 30년 동안 총무12년, 부회장2년, 회장2년 등 총 16년을 아교산에 봉사해왔다. 2021년에 정리한 아교산의 지난 30년간의 활동 기록을 보면 총 252회의 산행에 연인원 2,513명이 참가하여 회당 평균 9.9명이 산행을 했으며, 누계 등산고도는 216,223m를 등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는 대학원생들과 봄에는 자전거를 타고 부산이나 땅끝마을까지 전국을 일주하는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고, 여름에는 남해, 동해, 제주도, 울릉도에서 10km 바다수영, 가을에는 하프마라톤, 겨울에는 설악산에서 새해 해맞이 등산을 해왔던 것은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다. 그때 그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두 달에 한 번 씩 만나 각자 자기가 도전했던 행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 있었다고 자랑하며 수다를 떠는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교수님들과의 산행과 학생들과 함께 한 도전적인 활동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지금도 마라톤, 철인3종 경기를 할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기에, 킬리만자로, 엘부르즈, 몽블랑을 시작으로 7대륙 최고봉을 차례대로 등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 나에게 아주는?

나에게 아주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자, 모든 활동과 성취의 기반이었다. 아주대에 오자마자 대우건설과 처음 기획 추진했던 터널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는 총연 구비가 7억원으로 그 당시 아주대에서 두 번째로 큰 연구였다. 이후에도 2005년에는 35억 규모의 연구를 통하여 획기적인 교량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공학 연구는 그 연구결과가 실용화돼야 된다는 신념 하에 다양한 실용적인 연구와 기술개발, 특히 개발 등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활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해왔다.

1998년 IMF때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아주대에서 두 번째로 벤처 회사를 창업하였으나, 이 회사는 거액의 빚을 지고 파산했고, 두 번째 회사가 매출 1000억에 순이익 130억을 내는 회사로 성공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십 개의 특허를 실용화하는 일을 계속해왔고, 이러한 연구실적으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상, 장영실상, 국무총리상 등 수십 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이런 성과를 내면서 이런 성과의 기반이었던 아주대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장학금, 후원금, 건축기금 등을 기부해 왔다.

기술개발 외에도 국내외 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덕분에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토목학회장직을 수행할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을 선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을 촉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콘크리트학회의 석학회원, 아시아콘크리트연맹 회장, 국제표준화기구(ISO)의 PSC교량설계법 제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아시아콘크리트연맹 회장에 재임할 때는 조직의 정비와 학회 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아시아콘크리트연맹을 미국, 유럽학회와 함께하는 세계 3대 콘크리트 학회로 발전시켰다.

3. 후배교수와 학생들에게

대학교수가 연구를 수주하고, 논문을 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그런 의무를 다하

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구실적 기준이 지금 보다 낮은 편이어서 창조적인 생각을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올라간 기준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든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학생활이라는 것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생각없이 살아오던 편안했던 삶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귀담아 들을 나이도 아니다. 전공 공부를 포함해서 사회진출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는데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졸업을 하면 혼란이 온다. 내가 살아온 우리나라는 성공과 실패가 자기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상당히 정직한 나라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취미를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도 성공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없다.

4. 마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과거에 비하여 그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그러한 변화를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AI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매우 광범위한 기술적인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이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된다. 변화가 없으면 찬스도 없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신분 상승과 하락이 크게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는 기존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맨손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비록 성공확률은 낮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사업은 기존에 알려진 분야가 아닌, 생각지도 못하던 분야와 아이템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핵심을 간파한 창조적인 생각과 끈질긴 도전의 결과물인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건강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했으나, 쫓겨 났다가, 다시 들어가 애플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56세에 죽었다. 자기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이 건강 또한 공짜로 오지 않는다.

소통과

담론

제 2회 교수회 Unconference : 외란(外亂, Disturbance)속에서 살아남기



■ 취 지 : 우리는 원하지 않는 외적 작용인 '외란(外亂, Disturbance)'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 카톡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런 잡무(雜務)연락까지... 외란은 마음의 평화를 흔듭니다. 이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석자 : 김경민(미생물학교실), 김홍표(약학과), 남동호(알레르기내과학교실), 박만규(불어불문학과), 송근영(불어불문학과), 윤현철(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문구(기계공학과), 이상신(국어국문학과), 이승길(법학전문대학원), 조하연(국어국문학과), 전경근(법학전문대학원), 정재식(영어영문학과), 최영화(감염내과학교실)

■ 발 제 : 이문구 (기계공학과)

■ 시 간 : 2022년 10월 11일 (화) 17:45~19:00

■ 장 소 : 율곡관 256호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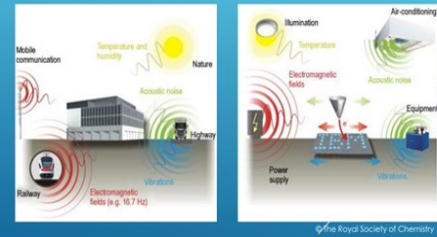
오늘 발제를 맡은 기계공학과 이문구입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은 '외란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외란'은 공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 정의를 잘 아실 겁니다. 안정된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원하지 않는 외적 작용입니다.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학에서 외란은 완전히 차단하거나 피하거나 관리해야만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외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의 사례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9시에 제자의 논문을 수정하려고 논문을 프린트 해서 한 줄을 고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학생이 찾아와서 지난 과제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고서 다시 앉았더니 학과에서 중간시험 일정이 공통 과목 시험과 겹친다며 새로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Bb에 올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다시 앉아서 논문을 고치려고 했더니 지난주에 다녀온 학회 출장이 반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쳐서 새로 올리고 났더니 12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선배 교수님이 심지어 부르셔서 신임 교수한테 공간을 어떻게 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외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과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논문 다시 고치기 했습니다. 시작한 지 10분 만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을 차단한 후 다시 집중하려고 하니 한 문장도 보기 전에 가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다시 집중하려고 했더니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뚫고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결국 다시 짐을 챙겨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방해는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심란함과 소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원인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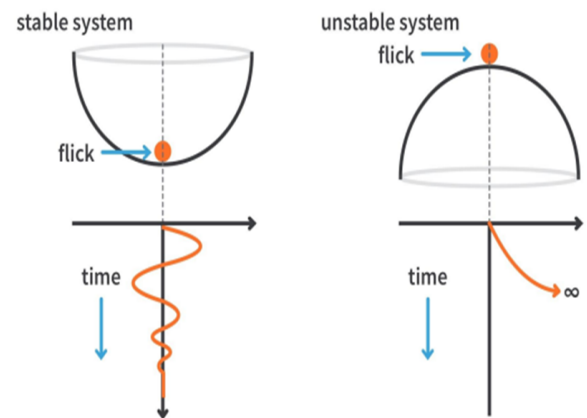
- 내부적 vs. 외부적?



[그림 1]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비어 있고 고요하지 않으니 시끄럽다' 하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외부에서 날 가만두지 못하니 고요하지 못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라인에서의 문제도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위의 그림처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생기는 심란함, 소란도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하고, 각 내적, 외적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 2022 CircuitBread, a SwellFox project

[그림 2]

첫번째로, 내부적인 문제부터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공학적으로 고강성 설계, Robust system는 안정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안정된 시스템이라 함은 사발 안에 구슬이 들어있고, 어떤 이유로 사발이 흔들리거나 구슬이 흔들려도 최저점으로 내려옵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와 잠재 에너지의 합이 0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혹시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몸이 움직이더라도 다시 0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의 시스템은 사발을 뒤집어놓고 그 위에다 구슬을 올려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위 논리를 가져온다면,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 내가 불안정하구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제로 '화엄경'에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고,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있고, 구속 구원의 '초사(楚辭)'에는 '막허정이념유해담무위이자득(漠虛靜而恬愉兮, 淡無爲而自得)' '아득히 텅 비어 고요하니 편안하여 즐겁고, 담백하게 무위하니 절로 얻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안정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편안함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일까요? 만약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를 세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Isolation, 거절은 default로 한다. 사람이 좀 정이 없죠. 두 번째는 Avoidance, 거절하기 힘들면 연락을 받지 마라.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겠죠. 세 번째는 Control, 최대한 늦게 콜백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이 콜백 기간 동안 대안을 찾 습니다.

다음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총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정말 좋은 제안이군요.",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곤란한데요.", "음..안되겠어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조금 거절이 쉽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이 발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과연 우리는 어떤 외란 속에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외란이 있음에도 나를 지킬 내면의 방법은 없는가?",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외란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1)

외적인 방해가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방해를 최소화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밤시간에 조용한 개인 방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본인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6시까지 연구실에 있기보다는 중간에 하루 day-off를 만드는 겁니다. 자연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내적인 방식을 터득하여 외적인 요인으로 부터 살아남는 본인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의견 2)

내적인 방법으로 외부 요인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외부 요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업 외에 맡고 있는 일들도 다른 의미의 외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거 같아요.

(의견 3)

생명체 자체가 오픈 시스템이잖아요. 외부라는 환경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고립시킬 수 없고, 항상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핵심 사안은 외부 영향이 왔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시스템에서 나의 마음을 unstable 시스

템과 stable 시스템 중에 stable 시스템인 상태가 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즉, 첫째로 외부로부터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합니다. 다만 내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나치게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그릇이 크거나, 혹은 위 [그림 2] 좌측 그릇처럼 왼쪽의 편한 모양인가 고려해야겠죠. 오른쪽 그릇은 절대로 안정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저 오른쪽 같은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약간의 외적인 작용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적인 상태에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불안장애 혹은 우울증과 같은 상태에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도달하고 그러면 오른쪽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3]

(의견 4)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오늘 발제의 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즉 내가 고요하여야 외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림 3] 슬램덩크의 저 장면이 인생 깊었는데요, 왜냐면 홈런 칠 때 야구 공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슬램덩크의 장면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날아가는 공의 모습이 각인되는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떠한 작용도 나의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외부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5)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 귀인을 할 수도 있고 외부 귀인을 할 수가 있는데, 불교적 사유의 한계는 모든 것을 다 내부 귀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한 어떤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잡는 것 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지나치게 내부 귀인만 보게 되면 외적인 요인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와 외부 귀인 모두를 균형 있게 다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2]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재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도 쓰고 노력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초연결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연구실에 있어도, 카페에 가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연결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앞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 이외에도 집단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의견 6)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슈베르트가 매 수 없잖아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
 독으로 31살에 죽었습니다. 그 시대는 31살에 훌륭한 예술 니다. 아마 모자라지만 슈베르트는 남에 의해 억지로 끌
 의 경지에 올라 갈 수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수준 려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 시대는
 좀 더 단순하게 살았던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음악만 하니까 한 20대쯤
 되면 그 경지의 도사가 되니까 가능했겠지만, 현대인의
 삶은 지나치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요. 제가 봤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불필요한 수업
 을 듣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기가 준비한 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손실하니까
 나중에 다들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좀 더
 단순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사회
 문제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여유 있
 는 사회의 풍토가 사회의 레벨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생
 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비가 작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참아
 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우리
 의 문화나 사회나 시스템이 겉으로 보기에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외부 상황에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의 시
 스템은 더 취약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
 고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큰 발전과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개인의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사람을 극도로 몰아서 생존하기도 힘든 상황, 우울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창조이고 인류
 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눈앞에 일밖에 못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고 교수가 된 게 아닐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남이 시켜서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아무도 행복할

교수들의
건강칼럼

문학 속의 간(肝) 이야기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정 재 연



어릴 적 재밌게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천년 묵은 구미호는 단골 주제였다. 해마다 여름 밤이면 "전설의 고향" <구미호> 편이 납량특집으로 나왔었다.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

신하여 순진한 약초꾼을 홀려서 유혹한 뒤 간(肝)을 빼서 먹었다. 어쩌나 무서웠던지 구미호 역할을 했던 여배우가 꿈에서도 등장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전설이 정말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우리 몸에서 간을 중요한 장기로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간(肝)을 사람의 의지나 감정을 나타내는 장기로 여겨왔다. 간에 관련된 속담들이나 표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애간장을 태운다 / 간 떨어진다 / 간이 부었다 /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 간이 콩알만 해졌다 / 간담이 서늘하다 / 간이라도 빼어줄 듯 /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등등.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다.

간에 대한 애증은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간에 관련된 우리 옛 문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토끼전(혹은 별주부전)"이다. 용왕님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토끼 간이 치료제라 하여 거북이(별주부)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데려온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바다로 간 토끼는 본인이 죽게 되자 내 간은 중요해서 우리 집에 따로 모셔 놓고 있다는 재치를 발휘하여 도망치게 된다. 참 의미심장한 토끼의 대답이다. 내 간은 다른 장소에 따로 보관할 수 있고, 용왕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대답. 우리 선조들은 생체간을 이식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재의 의학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서양 문학에서 간에 얽힌 유명한 스토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벌로 코카서스의 바위산에 강력한 쇠사슬로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받는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신이기에 간이 계속 자라나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서양 사람들도 예부터 간의 재생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의 전문 분야인 간장학 분야의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이영석 교수님의 저서 <시문학 속의 간(肝)이야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명이며, 일제강점기에 자신에 대한 순수한 성찰을 바탕으로 가혹한 시절 양심을 지키고 부당한 현실에 저항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 "간(肝)"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윤동주는 자신의 시에서 우리나라의 '구토 설화(龜兔說話)'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불굴의 작가로서, 간을 감정이나 열정이 아닌 신체 장기로 발표한 세계 최초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 일부를 옮겨 보았다.

<윤동주의 시 "간(肝)" 중에서>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인 죄로 목에 맷줄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토끼는 유혹으로 인해 간을 빼앗길 위기에서 벗어난 존재로, 헛된 욕망을 품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절제하는 자세로 양심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프로메테우스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정신적 자아를 지키며 양심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히 여겼던 우리의 간(肝).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귀한 간을 과도한 음주와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로 혹사시키고, 소홀한 건강검진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저서
소개란

Cine-Mobility: Twentieth-Century Transformations in Korea's Film and Transportation (저자 김한상,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한상 저 |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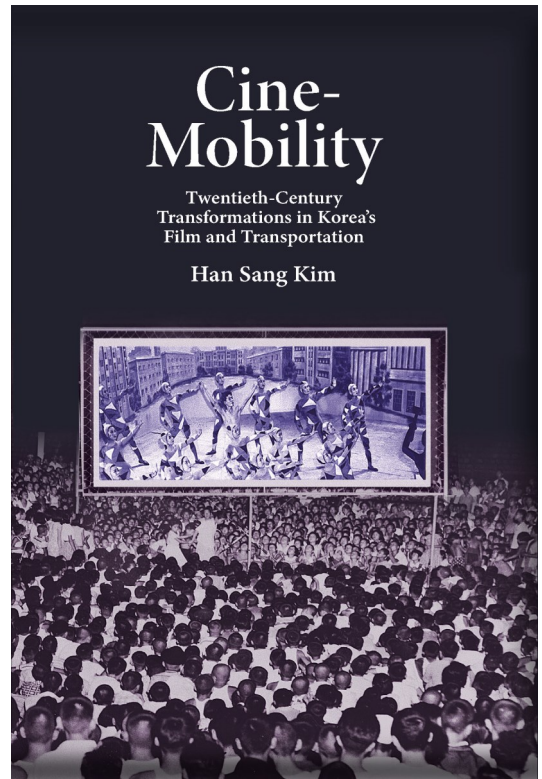
• 내용 소개

1916년 전남 목포에서는 다이쇼 천황의 즉위식을 찍은 영화를 보기 위해 농민과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이 상영회를 위해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철도를 통해 영사기와 발전기를 목포까지 실어 날랐다. 목포와 같은 식민지 조선의 지방 도시에 상업적인 영화관람 문화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영화들이 선전 목적으로 지방 도시와 마을로 운반되었다. 식민당국은 영화를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유용한 매개물로 간주했으며, 이는 해방 후의 한국 정부 역시 견지하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Cine-Mobility의 저자는 선전영화의 힘이 선전당국이 주목한 메시지에 있다기보다는 영화를 관람하는 위치에서 형성되었던 새로운 이동성에 있다고 말한다. 1901년경 대한제국에서 최초로 찍힌 영화에서부터 1990년대 후반 한

국에 나타난 초기 인터넷의 스크린문화에 이르기까지 Cine-Mobility는 영화적 미디어와 운송수단을 통한 이동성 사이의 제휴에 대해 탐구한다. 철도와 자동차 이동성, 자동화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같은 다양한 이동성에서 형성되었던 각각의 제휴 방식 뿐 아니라 그와 결합되어 구축된 규범과 제약들, 그리고 이동성에 기반한 성역학의 변화 등과 같은 문화적 변동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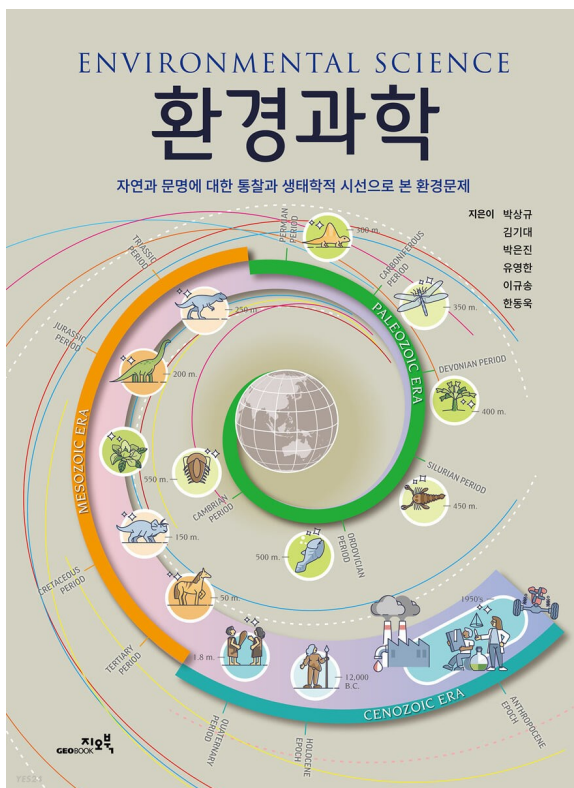
• 책의 의의

저자의 첫 문헌 저서인 Cine-Mobility는 20세기 한국사회를 시각 미디어와 근대적 운송수단의 제휴가 만들어내는 주체형성 과정으로 읽어내는 책이다. 이는 단순히 '20세기 한국사회', '영화', '운송수단'과 같은 소재들을 결합한 문화사적인 연구가 아니라, 감각적 경험세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변동을 읽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시각사회학적 시도이다.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시각적 경험세계가 인간과 만나고 사회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은 동적(kinetic)이며, 많은 경우 시각적인 것은 고정된 하나의 의미로 머무르기보다는 연속된 움직임의 일부로서, 보는 이에게 앞뒤로 개방된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저자는 시각적 경험세계의 이와 같은 개방성이 그 경험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사회학의 적극적인 해석적 접근을 요하는 이유라고 보며, 그러한 이유에서 시각적 자료를 '질적자료'(qualitative data)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론화를 추구해왔다. 저자가 Cine-Mobility에서 고안한 world-as-gesture 개념은 근대적 시각 경험에 대한 하이데거의 세계상(world-as-picture) 이론을, 근대적 시각미디어를 통한 감각적 경험 속에서 관람자가 마주하는 몸짓(gesture)을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의 해석적 접근을 통해 읽어내려는 저자의 연구방법과 결합하고자 한 사회학적 시도이다.



저서
소개란환경과학 - 자연과 문명에 대한 통찰과 생태학적 시선으로 본 환경문제
(저자 박상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박상규 저 | 지오북 | 2022.2.28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었던 2010년을 맞아 내가 속한 한국생태학회에서는 <생태>라는 대중잡지를 창간하였다. 나는 그 잡지의 편집위원장으로 특집 하나를 “생태와 생물다양성” 주제로 준비했었다. 그 이후로 지금도 자연환경해설사나 지질공원해설사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자주 하곤 한다. 하루는 그런 강의 이후에 “환경 이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2005년에 아주대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 환경과학과목을 17년 동안 가르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우리말 환경과학책은 없어서 영어로 된 외국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실정이었다. 그 질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자료와 사례를 가지고 환경 문제를 소개하는 생태학적 시각의 우리말 환경과학 교과서를 쓰게 되었다. 다른 생태학자들 5명과 마음을 모아 시작한 것이 2015년이었는데, 거의 7년이 다되어 <환경과학> 교과서가 2022년 3월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2022년 2학기 현재 내가 직접 쓴 이 교과서를 주교재로 <환경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 환경과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해 보자면 환경과학은 ‘인류문명’이 ‘자연’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즉 문명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환경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평화로운 초록빛 논들도 실은 강가의 배후습지를 없애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경지로 토지 이용 (land use)가 바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바꿔왔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자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에 의해 자연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쪽에 보이는 대부분의 땅은 예전에는 바다였지만 간척된 논인 경우가 많다. 산봉우리는 섬이었고, 논들은 바다였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며 강화도는 고려 때부터 간척이 이루어져 2개의 섬이 연결된 것이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최근에 4개의 섬을 간척으로 이어 붙여 만든 땅이다.

환경과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초 과학이지만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즉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태학을 전공하는 6인이 책을 쓰면서 생태학적 시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노력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환경이슈에서 중요한 2개의 키워드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이다. <환경과학>은 일반적인 환경과학 교재에서 다루는 에너지, 오염, 폐기물 문제도 포함하면서, 생태학과 진화적 기초 위에 환경보건, 먹거리와 농업,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강조한 책이다.

2005년도 전체교수세미나에서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싶다고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신임교원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다. 교과서는 다음 세대에 꼭 전해주고 싶은 지식을 추린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연과 이웃 생물들과 어울려 사는 모습으로 전진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자료와 문제의식이 담긴 이 <환경과학> 교과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홈페이지: <http://prof.ajou.ac.kr/prof/>

소식

교수회 소식

교수회 제 124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12시 교직원식당 오크룸에서 124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총 인원 27명중 12명 참석, 11명이 위임하여 성원되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수 연구실적평가 개정 관련 교수회의 입장' 공문 발송,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교수회 unconference 개최, 교수라이프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보고와 제 3회 교수라이프세미나 진행, 교수회 장학금 신설 여부, 확약형 연구비와 글로벌형 연구비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수회 Unconference 개최

교수회에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수회 Un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9월 13일(화) '판데믹 시대'를 주제로 첫번째 교수회 Un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10월 11일(화)에 '외란 속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두번째 Un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오는 11월 15일(화) 오후 5시에 을곡관 256호에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천재성에 관하여'를 주제로 세번째 Un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께서 참석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제 2회 교수라이프세미나 개최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 교수회가 주최하는 교수 라이프 세미나 제 2회 건강관리 특강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뱃살에 들어있는 여러 장의 진단서, 복부비만과 당뇨병을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중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대사증후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 세미나는 부동산 관리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여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를 바란다.



편집위원회:

김홍표, 박대찬, 박재연, 예영민, 오동석, 이규상,
이규인, 이홍재 정태선, 최영화, 호정화